

ESG 공시,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

2026-07-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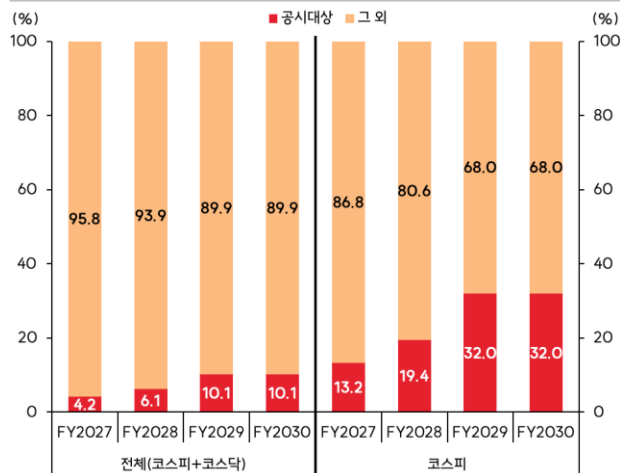
- 지속가능성(ESG) 공시제도화 방안 “최종안” 발표(2026년 7월 8일)
- ESG 공시 관련 주변 여건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라,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전략 재설정
- 2027 사업연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, 2028 사업연도 5조원, 2029 사업연도 2조원으로 확대 (2027 사업연도 = 2028년 3월 공시 사업보고서 대상, 모기업 뿐만 아니라 대표 종속기업까지 공시 대상)
- 2025 사업연도 기준 2028년 3월 공시 대상 기업 107개사, 2030년 259개사까지 확대 예정
-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, 재무제표 공시와의 공시 채널/시점 일치시켜 공시 정보 유용성 제고
- 2027 사업연도 기준 사업보고서가 첫 공시 대상이므로 공시 대상 107개 기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필요
- 연결기준 종속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또는 대기업 집단 부담 클 것으로 예상
-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이기 때문에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 될 가능성도 있음 (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미기재, 거짓기재 등의 경우 정정명령, 과징금, 형사고발 등 재무 공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)
- 단,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벌 한시적으로 면제하지만, 일반 투자자 및 환경 시민단체 등의 민법상 법률 행동까지 모두 제어할 수는 없을 것
- 공시 해당 기업 수 증가 및 제3자 인증 의무화 등 시행되는 2030년 대비해 지금부터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점

ESG 공시제도화방안 - 2026.07.08.

ESG 공시 로드맵	
공시시기 및 대상	- '28년(FY27) 연결자산총액 10조원 → '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- '28~'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'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※ 다만, 연결기준 자산&매출 10%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
공시채널 및 면책	- '28년(FY27)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- 예측,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
제3자 인증	-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※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
스코프3 시행	-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산출 인프라 구축 후 '31년부터 공시 시작(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) ※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&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

자료: 금융위원회, SK증권

연도별 공시 포함 기업 비중 추이



자료: 금융위원회, DART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된 사항이 아닙니다.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> 매수 / -15% ~ -15% > 중립 / -15% 미만 > 매도